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원들 강릉·고성 이재민 애로사항 청취	1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 이재민 생업 복귀 지원 총력”	2
G1방송	온라인	강원자치도, 도의회 태풍 피해 현장 방문	2
브릿지경제	온라인	강원도의회, 카눈 피해지역 현장 점검 나서	3
CBS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태풍 이재민 일상 회복' 앞장	4
일간투데이	14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태풍 ‘카눈’ 피해지역 현장방문...	5
江原日報	02면	이주호 부총리 오늘 도 방문	6
강원도민일보	02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오늘 도청서 고등교육 정책 간담회	6
강원종합뉴		[포토뉴스] 강릉시, 2023 제10회 명주인형극제 개막[1/3]	7
江原日報	21면	[동정]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	9
江原日報	온라인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대한민국 뉴리더대상 수상	9
강원종합뉴	온라인	[미담] 강릉시 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결식우려 ...	10
THE Lead	온라인	이한영 도의원 “태백의 여름은 큰 자산, 축제 통합 조직 운...	11
江原日報	16면	화천산천어 오픈 배드민턴대회	12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김기영(왼쪽 위) 시의장·심오섭(오른쪽 위)·박호균 ...	12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12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이병선(왼쪽) 속초시장·강정호(속초) 도의원	12
江原日報	01면	축구장 864개 면적 잠겨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실	13
江原日報	01면	태풍 피해지 달려온 자원봉사자들	13
江原日報	02면	축구장 864개 면적 잠겨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실	14
강원도민일보	03면	여야 전략적 요충지 '원주 공들이기' 강원 중원표심 공략	14
江原日報	05면	동해안 산불 피해지 산사태 무방비 노출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릉역 미래형 교통 거점 기대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춘천 태권도 글로벌 가치 확장해야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카눈’이 할퀸 상처, 피해 복구·지원 빈틈없어야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다시 뛰는 유가, 물가 관리에 경계심 풀 때 아니다	19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4일 (월)
종합 03면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강릉과 고성 피해지역에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도의원들 강릉·고성 이재민 애로사항 청취

도의회 차원 피해복구 지원 약속

17일 부의장 선출 경선 '3파전'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이 지난 11일 강릉과 고성 피해지역에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자리에는 권혁열 의장과 김기홍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한창수 기획행정위원장,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 심오섭·최승순·박호균·김용래(강릉)·엄윤순(인제)·이지영(비례) 도의원, 박용식 사무처장, 이진기 홍보담당관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강릉 사천면과 고성군 거진면·현내면 피해지역을 돌아봤다. 또, 빵과 음료 및 생수 각 300개를 전달하며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도 앞서 10일 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에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도내에선 영동지역 피해가 컸던 가운데 영동지역구 의원들은 재해취약 지구 및 예방시설 현장 점검 및 피해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도의원들은 도의회 차원의 피해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오는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부의장 선출 경선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에선 재선 한창수(횡성) 기획행정위원장과 초선인 김기하(동해) 도의원, 윤길로(영월) 도의원 등 3명이 부의장 선거 경선에 나선다.

이설화 lofi@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8월 14일 (월)
종합 03면

"자치도의회 이재민 생업 복귀 지원 총력"

권혁열 도의장 등 강릉·고성 수해현장 찾아 위문품 전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1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인 강릉, 고성 일대를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권혁열(강릉) 도의장과 도의원들은 이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강릉시 사천면과 고성군 거진면·현내면 일대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다.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빵, 음료, 생수 각 300개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권 의장을 비롯해 김기홍(원주) 부의장, 심영곤(삼척) 운영위원장, 한창수(횡성) 기획행정위원장, 김용복(고성) 농림수산위원장, 심오섭(강릉)·엄윤순(인제)·최승순(강릉)·박호균(강릉)·이지영(비례)·김용래(강릉) 도의원 등이 동참했다. 도의회는 이날 강릉 사천해변에 밀려온 쓰레기들로 해수욕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점과 침수지역 피해 상황을 파악한 만큼 추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장은 "이번 태풍으로 특히 영동지역 피해가 극심한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의 근심을 더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혁열 도의장과 심오섭·최승순 도의원 등은 앞서 지난 10일에는 강릉 경포·사천해변 진입로 등 도내 상습 침수지역을 찾아 침수, 통제에 대한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3년 08월 11일 (금)
강원

G1방송

강원자치도, 도의회 태풍 피해 현장 방문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도 재난안전실 관계자들이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본 속초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11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소야교 일대 등을 둘러보고 수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속초는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 9일부터 400㎜가 넘는 비가 내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권혁열 도의장과 김기홍 부의장, 이지영 도의원 등 강원자치도의회 의원단도,

태풍 피해가 심한 고성군 거진읍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2023년 08월 13일 (일)
지역
브릿지경제

강원도의회, 카눈 피해지역 현장 점검 나서

복귀 위한 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 약속, 강릉.고성 지역 둘러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 현장점검에 나선 강원도의회 의원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권혁열·김기홍·심영곤·한창수·김용복·심오섭·엄윤순·최승순·박호균·이지영·김용래 의원)는 지난 11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인 강릉, 고성 일대를 방문해 수해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태풍으로 강원 동해안에서만 주택침수와 토사유출 등 3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800여명의 주민들이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특히 누적 강우량 (8.9. 00:00 ~ 8.10. 06:00)은 속초 397mm, 삼척 387mm, 강릉 346mm, 고성 327mm에 달하는 등 강원 동북부 지역에 집중됐었다.

이날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강릉 사천면 및 고성군 거진면·현내면 피해지역을 돌아보고 위문품 (빵300개, 음료300개, 생수300개)을 전달하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을 돌아본 권혁열 의장은 “이번 태풍으로 영동지역의 피해가 극심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의 근심을 더는 것이 급선무다”,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춘천=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2023년 08월 11일 (금)
강원

CBS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태풍 이재민 일상 회복' 앞장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11일 권혁열 의장 등 태풍 피해지역 방문
위문품 전달, 이재민 애로사항 청취
권 의장 "빠른 시일 내에 생업 복귀 지원"

권혁열 의장 등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11일 강원 동해안 태풍 피해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책을 모색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권혁열 의장)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안 이재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권혁열 의장, 김기홍 부의장 등 의장단과 지역구 의원들은 11일 태풍 카눈 피해지역인 강릉, 고성 일대를 찾아 상황을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번 태풍으로 강원 동해안에서만 주택침수와 토사유출 등 3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800여명 주민들이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대피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전날에도 상습 침수지역 등을 돌며 대비 상황을 점검한 권 의장은 "이번 태풍으로 영동지역 피해가 극심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의 근심을 더는 것이 급선무다.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dtoday.co.kr

2023년 08월 14일 (월)
지역 14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태풍 ‘카눈’ 피해지역 현장방문 위문품 전달

노덕용 기자 nod2015@dtoday.co.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권혁열·김기홍·심영곤·한창수·김용복·심오섭·엄윤순·최승순·박호균·이지영·김용래 의원)는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인 강릉, 고성 일대를 방문했다.

이번 태풍으로 강원 동해안에서만 주택침수와 토사유출 등 3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800여 명의 주민들이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이날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강릉 사천면 및 고성군 거진면·현내면 피해지역을 돌아보고 위문품(빵 300개, 음료 300개, 생수 300개)을 전달하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을 돌아본 권혁열 의장은 “이번 태풍으로 영동지역의 피해가 극심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의 근심을 더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누리일보 등 53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08월 14일 (월)
종합 02면

이주호 부총리 오늘 도 방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도내 12개 대학총장, 산업체 관계자 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도청 및 도내 대학 관계자들과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 특강을 연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4일 (월)
종합 02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오늘 도청서 고등교육 정책 간담회

RISE·글로컬대30 등 논의

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고등교육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교육개혁 특강에 나선다.

이날 예정된 교육정책 간담회에선 고등교육 핵심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 대학 30'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내 대학 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 장관은 간담회 이후 교육 개혁 등에 대해 특강을 한다. 한편 'RISE'는 중앙부처가 담당하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학재정지원 사업예산 집행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글로컬 대학 30'은 200여개 지방대학 가운데 '담대한 혁신'을 제시한 대학 30곳을 선정해 정부가 대학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선 지난 6월 강원대·강릉원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가 예비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덕형

[포토뉴스] 강릉시, 2023 제10회 명주인형극제 개막

영동지역의 유일한 인형극제

송은조 기자

강릉문화원 명주인형극제추진위원회가 제10회 명주인형극제 포스터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 수상자 시상식 및 개막식을 9일(수)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 김홍규 강릉시장은 제10회 명주인형극제 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우수작 수상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사진=송은조 기자)

▲ 권혁열 도의장의 강릉문화원 명주인형극제추진위원회가 제10회 명주인형극제 포스터 공모전 시상 장면 (사진=송은조 기자)

▲최돈설 강릉문화원장의 시상▲▲ 장면 (사진= 송은조 기자)

올해 10회를 맞이한 명주인형극제는 영동지역의 유일한 인형극제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가족문화축제이다. 행사는 8월 9일(수)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10일(목)부터 8월 13일(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강릉대도호부관아 일원에서 국내·외 인형극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형극 "피터와 늑대"의 한 장면 (사진=송은조 기자)

▲ 행사는 8월 9일(수)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10일(목)부터 8월 13일(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강릉대도호부관아 일원에서 국내·외 인형극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0회 명주인형극제 포스터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송은조 기자

江原日報

2023년 08월 14일 (월)
인물동정 21면

◇권혁열강원특별자치도의장은 15일 오전 10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8월 13일 (일)
종합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수상

장애아 돌보미 추가수당 지원 등 처우개선 앞장
정부 부처와 소통하며 국비 확보에 기여한 공로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지난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뉴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받았다.

전찬성(더불어민주당.원주)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사)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뉴리더대상을 받았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장애아 돌보미 추가수당 지원을 위해 힘쓰고 정부 부처와 소통하며 국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찬성 도의원은 "앞으로도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문화매일 등 41개 언론사 보도

2023년 08월 12일 (토)
강원

강원종합뉴스

[미담] 강릉시 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결식우려 아동에게 식품꾸러미 전달

방학기간 급식 중단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31명에게..

송은조 기자

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복순, 윤용녀)는 11일(금) 방학기간 급식 중단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31명에게 식품꾸러미와삼계탕을 전달했다.

▲ 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복순, 윤용녀)는 11일(금) 방학기간 급식 중단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31명에게 식품꾸러미와삼계탕을 전달했다. ⓒ 송은조 기자

김복순 공동위원장과 윤용녀 교1동장은 “방학동안 소외감을 느낄수 있는 아동들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강원도의회 심오섭 의원은 “여름방학 동안 혼자 끼니를 챙겨야 하는아동들이 건강하게 방학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송은조 기자

2023년 08월 11일 (금)
자치의정

THE Leader

이한영 도의원 "태백의 여름은 큰 자산, 축제 통합 조직 운영 필요"

이형진 기자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춘천.태백 더리더)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태백1, 국민의힘)이 평균 해발 902m 고원도시인 태백시의 여름 축제 관련해 행사 중복 여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태백시에 따르면 먼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태백 선선 페스티벌을 부제로 제8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에는 7만여명이 찾으며 성공리에 마쳤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지역 내 여러 축제 및 행사가 겹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한영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족형.자연 친화적 관광 트렌드가 새롭고 힘 있는 관광 선택지가 됐다"며 "태백의 청정 여름 기간 동안 지역 축제와 행사들이 조화롭게 펼쳐진다면 태백의 여름이 지역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한영 의원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축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를 당부하며 "반경 100m를 사이에 두고 여러 축제가 혼란스럽게 진행되기보다는 축제들이 한 기간에 몰리지 않게 계절 동안 체계적으로 조직돼 개최된다면 '태백의 여름'이 선선한 기후와 다양한 즐거움을 갖춘 하나의 시즌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한영 의원은 "시 주관의 축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선도하는 축제, 여름밤을 채워주는 야시장, 플리마켓 등과 새단장 중인 은하수 축제까지 태백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여름 축제의 장을 만들자"며 다시 한번 자연, 기후, 축제를 통합하는 조직적인 운영을 당부하고, 축제를 개최하기까지 고생한 관계기관과 단체들에 감사를 표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江原日報

2023년 08월 14일 (월)
지역 16면

화천산천어 오픈 배드민턴대회 제16회 화천산천어 오픈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12, 13일 이틀간 화천체육관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1,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4일 (월)
인물동정 11면

김기영(왼쪽 위) 시의장·심오섭(오른쪽 위)·박호균 도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강릉 경포 3·1독립만세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제6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4일 (월)
인물동정 16면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14일 오후 6시 30분 고성군 토성면 운봉리 송모공원에서 열리는 제17회 3·1독립 애국지사 송모문화 별빛축제에 참석해 애국선열을 추모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4일 (월)
인물동정 16면

이병선(왼쪽) 속초시장·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4일 오전 10시 엑스포분수대에서 열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2023년 08월 14일 (월)
종합 01면
江原日報

축구장 864개 면적 잠겨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실

〈농지 617ha〉

태풍 '카눈' 피해 복구 총력

피해액 고성 44억·양양 40억
고성 현내면만 21억원 달해
자체 집계는 선정 기준 부합

침수·파손 시설피해도 767건
태풍 2개 이상 추가 영향 우려
道 가을까지 상시 대응체계 유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영동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앞으로 최고 2개 이상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성과 양양의 태풍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돼 강원자치도는 정부와 복구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가을태풍에 대비한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관련기사 4·5·12·13·14면

■**주민 944명 대피, 축구장 864개 농지 잠겨**=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태풍 카눈으로 인해 총 618가구의 주민 944명이 대피했다. 이 중 39가구 61명의 주민은 13일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전체 시설피해 767건 중 591건은 민간시설에서 집중 발생했다. 침수 356건, 공장·상가 재산 피해 205건, 석축·축대 파손 16건 등이었다. 농업 피해도 속출했다. 이번 태풍으로 총 617.1㏊의 농지가 수해를 입었다. 이는 축구장 864개와 맞먹는 규모다.

25개 학교도 피해를 입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동해 A고교의 경우 교사동 1층이 침수됐고 산사태도 발생했다. 강릉의 B초교는 운동장 및 학교 입구, 교사동가 일부 침수됐다. 고성의 C분교장은 운동장과 관사, 창고, 숙직실이 모두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고성·양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할까**=강원자치도는 고성군의 피해액이 44억원, 양양군은 40억원으로 자체 집계했다. 고성과 양양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40억원이다. 다만 정부 조사에서 피해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태풍으로 고성군 현내면에서만 21억원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강원자치도는 고성군 전역이 어렵다면 현내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최기영·원선영·김준겸·김오미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년 08월 14일 (월)
종합 01면

태풍 피해지 달려온 자원봉사자들 지난 11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강릉, 양양, 속초, 고성 등 동해안 곳곳에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13일 고성군 거진읍에서 도내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성=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3년 08월 14일 (월)
종합 02면

축구장 864개 면적 잠겨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실

-1면에서 계속

교육 당국도 2학기 학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의 위험과 하천변의 거센 물살로 인한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2학기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을태풍 대비… 상시대응체계 가동=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4.8개로 이 중 3.6개가 8~9월에 발생했다. 국내 태풍의 75%가 늦여름~초가을에 집중된 셈이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가을까지 태풍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확기라는 점에서 농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4일 (월)
종합 03면

여야 전략적 요충지 '원주 공들이기' 강원 중원표심 공략

국힘 당지도부 오늘 원주 총출동
민주 28일 원주 워크숍 전원 참석

차기총선이약8개월앞으로바짝다가오면서 여야정치권이 강원 중원표심 공략에 경쟁적으로나섰다.

국민의힘은 14일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원주로 총출동한다.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연다. 김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김병민·조수진·김가람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수석대변인 등 중앙당직자들과 박정하 도당위원장, 도내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당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이다. 원주 갑을 지역구는 여야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갑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을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다. 강원 중원 표심으로 통하는 원주는 여야 모두에게 있어 필승지역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원주 공들이기'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진 뒤,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일환으로 도로교통공단 본부에서 교통정책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고위원회에 앞서 강원지역 입당식도 진행한다. 또, 지역 내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 오찬간담회도 갖는다. 교통정책개선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도 참석한다. 김 대표의 강원 방문은 지난 6월 철원지역 군(軍) 부대 위문 이후 약 두 달여만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도 발전방안 등 여권 차원의 지원책이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오는 28~29일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당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9월 정기국회를 대비, 상임위별 주요 쟁점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연찬회에선 강원 총선을 대비한 선거 전략 등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강원도 중원에 위치한 원주는 전략적 요충지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전략지역이 아니겠느냐"며 "여야 지도부의 원주지역 잇단 방문을 통해 원주와 강원특자도에 대한 여야 중앙당 차원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2023년 08월 14일 (월)
사회 05면
江原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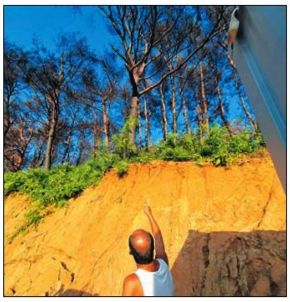
동해안 산불 피해지 산사태 무방비 노출

강릉시 경포 곳곳 토사 유출 이재민들 "비 올때마다 불안"

사방공사 이달 말에나 착수 전문가들 "대책 마련 시급"

동해안 산불 복구 과정에서 만들어진 '절개지(경사면)'가 폭우 산사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사방 공사 작업을 마친 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면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간 지난 11일 강릉 경포 산불 피해지인 저동. 이 일대 임야 경사면 곳곳은 폭우로 움푹 파여 있거나 빗물에 토사가 흘러내렸다. 임시 컨테이너에 입주한 김형택(74)씨는 "임야 경사면이 무너져 불에 탄 소나무가 컨테이너를 덮치지 않을까 불안해 태풍 내내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 김 씨의 컨테이너 뒤편에는 35m 길이의 경사면이 있지만, 이 중 10m 정도만 천막이 임시로 덮여 있었다.



◇지난 11일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경포 저동 일대 경사면. 신하림기자

인근에 노모와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는 50대 주민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산불로 타이어 축대가 불에 타고 남은 경사면은 빗물에 곳곳이 쓸려 내렸다. 이 주민은 "옹벽 공사 등이 절실한데, 감감무소식"이라고 성토했다.

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경포 산불 피해지 일대 28개소에 14억여원을 들여 사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이달 말에 착수해 순차적으로 10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재민들은 "태풍은 9월 초에도 올 수 있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겠다"며 "컨테이너에 입주하며 겨우 안정을 찾아 가던 중이었는데 다시 불안해졌다"고 말했다.

산불 사방 사업을 마친 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

2019년 산불로 상가 전소 피해를 입은 고성 토성면 인흥리의 한식당 '잿놀이'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바로 옆 임야에서 흙 300톤이 쓸려 내려오는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시간당 91㎜가 쏟아진 '극한호우'는 취약점을 파고 들었다. 불에 탄 소나무를 대신해 대나무, 어린 잣나무 등을 심었지만 아직 나무 뿌리가 토양을 잡아 주는 힘은 약한 상태였다.

김성진(64) 대표는 "4년 전, 산 아래에 2m 높이의 호안 블록을 쌓아 그나마 토사가 식당을 덮치는 피해는 면했다. 당시 식당에는 임직원 7명이 있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지 토사 유출, 산사태 방지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석우 강원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산불이 발생한 토양은 건조하고 단단해져 지표면을 따라 물이 더 잘 흐르기 때문에 폭우 재해에 취약하다"며 "2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속도로 응급 복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4일 (월)
사설/칼럼 19면

강릉역 미래형 교통 거점 기대

-복합환승센터 추진 계기 경제 효과 극대화해야

강릉시가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통해 미래형 교통 거점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도심 경제권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도시로 위상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거점을 완성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동해안 남부권과의 교통망 확충은 물론, 동해북부선의 차질 없는 추진도 뒤따라야 합니다. 연계 교통망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돼, 시의 구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시는 최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용역사업 공고를 냈습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준비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 2억5000만원과 지방비 2억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투입, 내년 말까지 복합환승센터 수요 분석에 따른 청사진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강릉역 인근 20만6890㎡에 관광형 및 거점형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역세권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2026~2030년 추진 예정인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법정 계획에 반영, 민간사업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열차와 선박, 대중교통시설을 망라한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교통시설 개발은 개별 시설별 타당성 위주로 추진돼, 전체 교통 네트워크 차원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이 낮았습니다.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 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개발 파급 효과도 극대화할 전망입니다.

강릉은 미래형 교통 거점 도시 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KTX 운행을 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된 데 이어, 고성으로 연결되는 동해북부선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에 교통 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를 유치, 도시 전역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동해선 강릉~삼척 고속화철도 건설이 최종 확정 등 연계 교통망 완성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강릉시뿐 아니라 도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8월 14일 (월)
사설/칼럼 19면

춘천 태권도 글로벌 가치 확장해야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 본격화, 다방면 파급효과 내도록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의 춘천 유치 이전 협약식이 8월 19일쯤 열립니다. 제14회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를 전후해 협약 공표를 전력해왔던 춘천시로서는 지난 10일 시의회의 협약동의안 가결로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부 건물은 내년 설계에 들어가 27년 완공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여러 태권도대회 유치와 관련 교육, 기반 확충에 전력키로 했습니다. WT 본부 이전은 태권도 도시 춘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또 한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권도는 다른 종목과 달리 고유문화를 세계에 알리며 외교적인 역할까지 톡톡히 하는 스포츠입니다. 오늘(8월 14일)까지 열리는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WT승인대회로 입상선수에게 부여하는 세계 랭킹 포인트를 쟁취하기 위한 실력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60개국 32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했습니다. 제1회 대회가 열린 2000년 48개국 1500명 참가에 비하면 20년 사이에 양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춘천대회는 태권도와 문화가 결합된 축제형대회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선보인 태권도 갈라쇼는 색다른 재미로 대회 상징이 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회창설 목적인 태권도공원 건립이 무산되면서 한때 폐지론까지 나온 적도 있지만, 위기를 뚫고 태권도와 문화, 선수와 관중이 어우러지면서 대회 등급이 격상되는 등 태권도 브랜드화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더 성장하려면 춘천시는 특성화와 함께 올해 대회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 완벽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전문적이고 치밀한 대회 평가가 전제돼야 개선과 보완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외국인 참가자들의 성향과 감성, 프로그램 선호도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가 선수 간 친선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도시경험과 문화체험이 다양해야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활용해 시민 동참 분위기를 확장해야 합니다.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국제대회는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거두는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보급된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하므로 한국 홍보와 국제 친선 도모에 유리합니다. 다른 종목과 달리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차원 지원이 요청됩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이므로 중앙정부 관심을 더 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8월 14일 (월)
사설/칼럼 19면

'카눈'이 할퀸 상처, 피해 복구·지원 빈틈없어야

태풍 관측 이래 이례적 한반도 중앙 관통
강릉 산불 피해 이어 수해까지 '설상가상'
정부 차원의 보살핌과 지원 따라야

제6호 태풍 '카눈'이 물러갔다. 지난 10일 한반도 중앙을 관통하며 온 국민이 가슴을 졸였다. 태풍 관측을 시작한 1951년 이후 이런 경로는 없었다. 태풍이 한반도로 접근해도 편서풍 때문에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동해상이나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카눈'은 이례적으로 계속 북진한 것이다.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 것은 서에서 동으로 부는 '제트기류'와 태풍의 북상 시점이 겹치지 않았고, 고기압의 '벽'에 가로막혀 바다를 떠돌던 태풍이 한반도 중앙에 만들어진 통로를 따라 올라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연이 겹치며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태풍 경로가 생긴 것이다.

'카눈'의 중심은 한반도 내륙을 지나갔지만 '극한호우'는 강원특별자치도 영동에 집중됐다. 시간당 80~90㎜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영동지역이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경'에 있는 데다 지형적 영향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또 동해안 쪽은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태풍이 더 많은 비를 뿌리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틀 사이 최대 400㎜의 폭우가 내렸다. 강릉 정동진천, 삼척 가곡천 등 주요 하천이 범람하며 주택, 상가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10일 밤 10시 기준 침수 및 산사태 위험을 피해 경로당으로 대피한 인원은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평창, 정선, 고성, 양양 일대 294세대 690명이었다. 특히 올 4월 강릉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데 이어 태풍 '카눈'으로 또다시 수해가 발생하며 강릉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형국이다. 국가 차원의 깊은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강릉 산불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 120여세대도 막막한 상황이다. 고성에도 폭우가 퍼부으며 2019년 산불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도 또 한 번 재난을 겪었다. 강풍 피해도 잇따랐다. 10일 오후 3시 기준 지역별 최대 순간풍속은 설악산 초속 30.2m, 삼척 24.9m, 정선 23.6m, 대관령 22.7m였다.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의 한 주택에서 지붕과 유리창이 파손돼 소방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폭우, 태풍 등 기후 재난이 더욱 잦아지고 강도도 한층 세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피할 수 없는 기후 재난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기후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충분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 역시 이번 태풍 '카눈'을 겪으며 천재지변도 대처 여부에 따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아울러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연재해 앞에서 우왕좌왕해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 대비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2023년 08월 14일 (월)
江原日報
사설/칼럼 19면

다시 뛰는 유가, 물가 관리에 경계심 풀 때 아니다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도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2일(1,700.04원) 이후 10개월 만에 ℓ당 1,700원을 넘어섰다. 경유 평균 가격은 7월 1주차 이후 4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ℓ당 1,500원을 돌파했다. 기름 값이 들썩이는 것은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탓이다. 우선 계절적으로 6~10월은 미국의 최대 휘발유 수요 기간인 '드라이빙 시즌'이다.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고 있다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최근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산유국협의체인 OPEC+의 동반 감산 기조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원유공급망 차질도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가 인상은 서민들에게는 큰 근심이다. 이미 고공행진 중인 채소나 과일 가격이 부담스러울 만큼 치솟았다. 그런데 끝이 아니다. 먹거리물가 상승요인은 아직 남아 있다. 당장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며 채소류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러시아가 흑해곡물수출협정 중단을 선언해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다. 전기료와 최저임금,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뛸 예정이다. 여기에 유가 인상이 추가되면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다. 소비자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풀 때가 아닌 것이다.

점심 값의 경우 1~2년 사이에 한 끼에 수천원씩 뛰었다. 식당 등 서비스 업체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채소 값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음식 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은 올해 1~7월 '근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4.5%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근원물가는 날씨나 국제유가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로 장기적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수치다. 물가의 기저 흐름은 아직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근원물가는 등락 폭이 크지 않아 1~2%에 머무르는 게 보통이다. 7월까지 4.5%나 올랐다면 평년의 몇 배나 폭등했다는 의미다. 전체 물가 기조 자체는 둔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물가 안정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